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2]2228-0180

생애의 연인,  
**엄앵란이 찾아옵니다.**  
 대표강연회 열망의  
 광주지사 062)228-3222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7(土) 구름조금 17 / 30℃	18(日) 구름많음 18 / 27℃
---------------------------	---------------------------

**News**

- 이트스커넘어16강가자 ②
- 통일대축전 성과와 과제 ③

**Jeollado**

- 풍수·해상왕국 꿈꾸는 완도 ⑦

**Entertainment**

- 광주에서 만난 '고음불가' ⑧
- 영화 '괴물' 봉준호 감독 ⑨

**Books**

- 만화본 '미학오디세이' ⑩
- 손가락에 핀 꽃 '유이' ⑪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감자 ⑬



고르바초프(앞줄 왼쪽) 옛 소련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16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북핵 해결·인권탄압 중단 촉구

### 노벨평화상 정상회의의 '광주 선언' 채택 오늘 폐막

#### 盧대통령 "햇볕정책 남북 반목·갈등 해소 전환점"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가 17일 5·18 정신과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의 확산을 담은 '광주선언' 발표를 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선언은 5·18정신을 세계 속에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세계 평화의 시발점으로 삼자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각론으로는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세계 국가들의 지지 촉구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중동평화 문제 등 분쟁 해결 방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한 중단 촉구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단체 대표 등 12명은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각 부문별 토론을 거쳐 '광주선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6일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대통령, 쉬린 에바디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단체 대표, 노무현 대통령 등 국내외 초청인사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정상회의의 개회식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개회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 공동의장인 고르

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 등으로 이어졌다.

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와 서신을 통해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기원했다.

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남북한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광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구축과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5월 광주정신을 세계속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은 "마지막 장벽 :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증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세계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이 되돌아 오면서 민주주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단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이타하는 것을 묵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민주주의 달성은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문제는 당사자인 양국과 실질적인 남북한 민족간의 재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운동이었다"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은 이 나라에 반석과 같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왔으며 그런 토대 위에 경제발전과 남북간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와 평화, 화해·협력의 위대한 광주의가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정상회의를 갖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광주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광주의의 정신과 결부돼 많은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17일까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한국의 민주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신장', '동아시아의 평화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평화' 등 4가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월드컵 기사 2·4·5·6·14·18·19면

## "8월 15일 평양서 만남시다"

### 6·15 민족통일대축전 폐막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었다. 사흘간 '빛고을' 광주의 상공에 펼쳐졌던 한반도기가 내려졌을 때, 한데 어울려 '조국 통일'을 연호했던 남과 북은 꼭 붙잡고 있던 두 손을 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6·15 남북공동선언 6돌을 기념해 지난 14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6·15민족통일대축전'이 16일 폐막식과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남북 및 해외 대표단은 이날 오전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다양한 종목의 체육오락 행사에 이어 폐막식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겼다. <관련기사 3·4면>

정현백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주·민주의 성지 광주는 축전 기간동안 평화와 통일의 열기로 달아올라 모두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지켰다"며 "아쉬운 작별을 하지만 6·15정신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은 흠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민간 대표단장인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6·15 공동선언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심장에 새겨야 하며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건

6·15공동선언이 가리키는 통일의 길을 따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이어 "이 길에서 물러서면 우리는 다시 천만리로 멀어지고 반목과 대결의 세월을 또다시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반전평화와 민족대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다시 만남시다' '우리는 하나' 등의 노래를 합창하며 평양에서 열린 8·15 행사에서 재회할 것을 기약했다.

폐막식에는 민간 대표단 외에도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김영대 민족화해협력의총장이 각각 이끄는 남북 당국 대표단도 참석했다.

오후에는 목포로 자리를 옮겨 유달산을 돌아본 뒤 유달경기장에서 '6·15공동선언발표 여섯돌 기념' 축하공연을 관람하는 데 이어 밤에 신안비치호텔에서 민간과 당국이 별도의 환송연회를 갖는다.

남북 대표단은 17일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관하며 북측 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 4시 전세기편으로 광주공항을 출발, 평양으로 돌아간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b>&lt;17일&gt;</b>	<b>포르투갈 D</b> 프랑스 0-1 포르투갈	<b>이란</b>
<b>&lt;18일&gt;</b>	<b>체코 E</b> 체코 1-0 그리스	<b>가나</b>
	<b>이탈리아 E</b> 이탈리아 1-0 미국	<b>미국</b>
	<b>일본 F</b> 일본 1-0 크로아티아	<b>크로아티아</b>
<b>&lt;19일&gt;</b>	<b>브라질 F</b> 브라질 1-0 호주	<b>호주</b>
	<b>프랑스 G</b> 프랑스 1-0 한국	<b>한국</b>

**스코어 노트**

에콰도르 (2승) 3 A 0 (2패)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2승) 2 B 0 (1무1패)	트리니다드
스웨덴 (1승1무) 1 B 0 (2패)	파라과이

## "北 미사일 발사 임박"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 일부를 이미 발사대에 설치한 상태라고 16일 미국 군사정보 관계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미 정부가 당국자가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실험준비에 대해 "지난 48시간 동안 극히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며칠 안에 발사를 할 수 있는 최종단계에 접근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는 등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이르면 금주말께 발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북한당국이 단순히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사를 준비하기보다는 발사실험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 발사실험을 취소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 51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축제(유치부) 공모**  
 접수마감 : 6월 21일(수)까지  
 http://www.kwangju.co.kr | 전화 : (062)220-0541

국제약품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살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갈해합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